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로자들이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6월 노사의 62만대 증산 합의를 통해 기아차 화성공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 일류 車 생산기지... 광주경제 성장엔진 달았다

2013 이슈 진단 6 기아차 62만대 증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은 올해 공장 설립 이래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6월 광주공장 노사가 합의한 62만대 증산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기아차를 대표하는 공장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광주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도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6월27일 광주 2공장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종 합의하고, 7월 41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기아차가 2011년 12월 광

주공장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19개월 만에 증산 일정이 마무리된 것. 광주공장은 46.1UPH(시간당 생산 대수)인 2공장의 생산 대수를 노사가 합의한 58UPH까지 끌어올렸다. 총 3000여명이 투입된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광주공장의 연산 62만대 생산체제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경기도 화성공장(62만대)의 생산규모와 맞먹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2만여대 생산에서 소울과 스포티지R의 잇따른 성공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수출량 25% 증가에 연 매출 10조원 돌파 기대

기아차 대표 생산기지...100만대 생산도시 탄력

광주공장은 62만대 증산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15년 전인 1998년, 트럭 및 버스를 생산하며 연산 6만대에 그치던 공장에서 기아차를 대표하는 생산 기지로 거듭난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62만대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광주공장은 올 11월 공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월 생산 5만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아차의 해외 수출길인 목표량은 증산 효과로 올해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1%

나 증가한 22만2573대에 이르렀다. 광주공장의 내년 전망은 한층 더 밝다.

광주공장의 주력 수출 차종인 올 뉴 쏘울과 스포티지R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량도 2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9만여대 가량 생산이 적체된 스포티지R, 올 뉴 쏘울의 생산량 감소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8조원인 연간 매출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도 성장을

거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조 674억원이던 광주 자동차산업 매출액은 2014년 15조3266억원으로 22.3% 가량 상승이 예상된다. 광주 제조업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0.13%에서 2014년 45.08%로 올라간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올해 예정보다 많이 지체됐지만 62만대 증산으로, 광주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광주공장은 내년 각종 생산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 일류 자동차 생산기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단체장 통제용?

새누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보완책
지자체 파산제·3선 연임 제한 등 검토

새누리당이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와 지자체장 3연임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한 관계자는 이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그러면 빛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한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3연임 제한 검토는 새누리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 정계특위 위원장도 지난 1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견제 장치로 무분별한 재정 사업으로 정상

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빛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예산 및 인사 등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미국 등 일부 지방자치체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지자체장의 3연임 제한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자도로, 지역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3연임 제한 검토는 최근 정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구의원 민주당 탈당 잇따라... 安 신당 합류할 듯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안철수 신당'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혜옥 광주 북구의원 등 일부 구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옥 의원은 16일 "광주지역 일부 구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직 구의원들도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탈당 명단은 기자회견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문 의원을 포함해 전·현직 구의원 5명 가량이 탈당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탈당 후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정성·진선기 광주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 이춘문 시의

원은 안철수 신당 행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들의 탈당에 대해 "지방자치와 한국정치의 발전보다 자신의 당선만을 노리는 정치행위"라며 "시민과 당원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 초·중·고 학생, 대학생
- 시기 : 겨울방학 기간 중
- 시간 : 3~4 시간
- 비용 : 무료
- 내용 :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 및 언론보상사례,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 신청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참조
- * 문의 : 수시교육팀 (02)397-3062~4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17만원 vs 19만원' 쌀값에 발목잡힌 예산안

대부분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을 놓고 정부는 80kg 당 '17만4083원'을, 야당은 '19만5901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초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지난 9일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산

정해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1900억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다만,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어 열린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서 예산 처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예초 농해수위는 16일 위원장과 양

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해수위 내내 예산안을 심사를 막고 있는 '쌀 목표 가격'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돼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80kg당 '17만4083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5년간 물가와 쌀 생산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2만50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태도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야당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가 막히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당초안보다 5600원 올린 17만9600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야당이 19만원 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농해수위의 예산·법안 처리는 향후에도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 성인학습자 모집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 성인학습자 모집

1. 한 학기 등록금 100만 원 이하에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벌써 반값 등록금제를 시행하나요?
: 아니요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특별 장학금 제도를 시행, 반값이 아닌 반에 반값 등록금제가 가능합니다.

3.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직무능력향상형)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 향상이나 취·창업에 필요한 일반 성인(만 23이상 혹은 재직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격(전문학사 학위 수여)을 취득할 수 있으면 본인의 학업 열정에 따라 전공 심화 과정으로 4년제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4.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학과 소개

- 화훼원예과 | 22년 역사와 1,500여명 화훼동문조직 활동 및 학교기업 운영
- 뷰티미용과 | 전국 미용협회와 협력관계 구축 및 웰빙 분야의 신기술 보유
- 자동차과 | 중소기업 기술이전의 우수한 교수인력 및 최첨단 실습장 확보
- 호텔커리어학과 | 전국 유일의 학과로서 해외 취업 및 요식 창업주도
- 음악과 |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생활음악 교육체제 운영실적 함유



WCC(World Class College)
교육부 선정 세계적 수준 전문대학교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과학대학교
광주·전남에는 전남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		구분	수업과정	지원자격 대상자
화훼원예과	30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 만 23세 이상 미취업자
뷰티미용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 만 23세 이상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자동차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 만 23세 이상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호텔커리어학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음악과	15명	야간/주말반	2년과정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정시모집	1차	인터넷 13, 12, 19(목) ~ 14, 1, 7(화)	14, 1, 10(금) (11:00)	14, 1, 13(월)	14, 1, 15(수) ~ 14, 1, 17(금)
	2차	본 교 13, 12, 19(목) ~ 14, 1, 8(수)			
1차	1차	인터넷 14, 1, 28(화) ~ 14, 2, 16(일)	14, 2, 19(수) (11:00)	14, 2, 21(금)	14, 2, 24(월) ~ 14, 2, 26(수)
	2차	본 교 14, 1, 28(화) ~ 14, 2, 17(일)			

승인 교육기관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http://www.leagri.or.kr

문의	<p>061-360-5348 (평생학습 지원센터)</p> <p>010-3348-7858 (평생학습 행정담당)</p>
----	--